

통계로 보는 유방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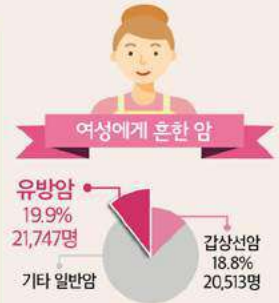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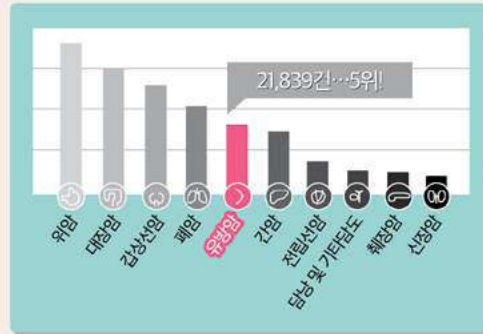


흔히 선진국형 암이라고 하는 유방암.
유방암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률이 낮았으나,
생활방식이 서구화되고 영양 및 발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최근에는 여성 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방암이란 무엇이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예방은 할 수 있는지 등 유방암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유방암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 현황

유방암은 2016년에 21,839명이 새로 발생하였으며, 여성에게는 1위로 많이 발생하는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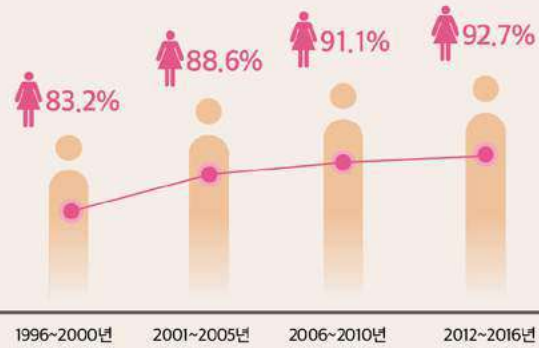
[여성에서 발생 1위인 유방암]

자료원: 2016년 암등록통계,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

유방암이란?

유방암은 유방 안에 머무는 양성 종양과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입니다. 유방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어느 것이든 암세포로 변할 수 있으므로 발생 가능한 유방암의 종류는 꽤 많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방암이 유관과 소엽의 세포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방암이라 하면 유관과 소엽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암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종양(Tumor)'이란 신체 세포가 스스로의 분열과 성장·사멸을 조절하는 기능에 어떤 이유로든 고장이 생겨서 과다하게 증식한 덩이를 말합니다.

유방암의 생존율



※ 5년 상대생존율
자료원: 2016년 암등록통계,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

유방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유방암은 모든 암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암중의 하나인데도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모호한 지식만 있고 아직 확실하게 유방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이 유방암 발생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유방세포는 에스트로젠의 자극에 의하여 증식과 분화를 하므로 유방암 발생 위험은 일생 동안 에스트로젠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증가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을수록, 출산을 하지 않거나 첫 임신이 늦을수록, 출산을 하더라도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장기간의 피임약 복용이나 폐경 이후 장기간의 호르몬대체요법도 유방암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지방, 고칼로리의 서구화된 식이, 젊은 나이의 과도한 음주와 비만 등도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 가족 및 형제 자매들에서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방암 환자가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유방암 환자의 30% 정도에서는 이러한 알려진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이므로, 모든 여성은 유방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여러 위험인자 중에서 잘 알려지고 스스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방암 발생 고위험군

- 50세 이상의 여성
- 어머니나 자매 중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 한쪽 유방에 유방암이 있었던 사람
- 출산 경험이 없었던 사람
- 30세 이후에 첫 출산을 한 사람
- 비만,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하는 사람
- 장기간 호르몬의 자극을 받은 사람(이른 초경, 늦은 폐경, 폐경 후 장기적인 여성호르몬의 투여)
- 엑스선 치료를 받았던 사람
- 지속적인 유방 문제(덩어리 병소가 있는 유방)와 자궁내막, 난소, 대장에 악성종양이 있었던 사람

유방암의 위험요인



유방암의 증상



유방암의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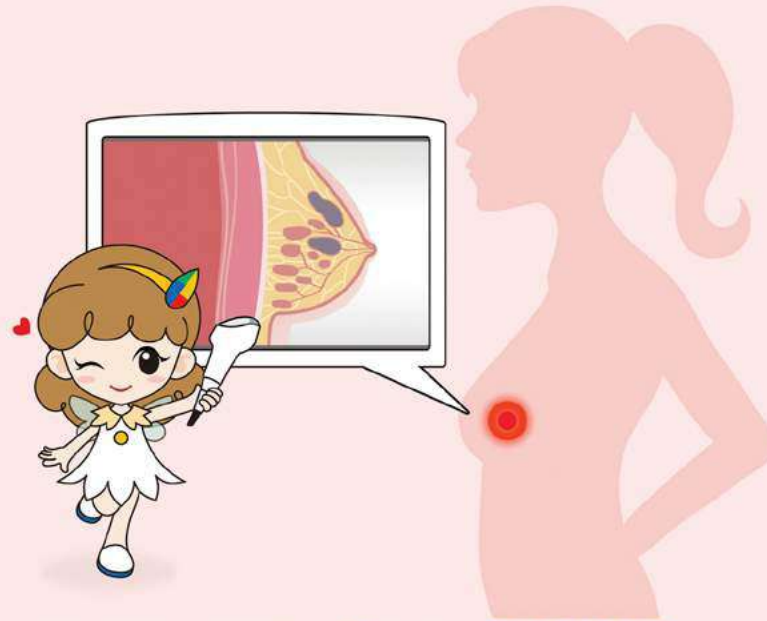
유방암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환자가 불편감을 느끼는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고, 건강 검진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유방암의 멍울은 대부분 통증이 없고, 딱딱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하며,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진행되어 유방에서 만져질 정도가 되려면 최소 1cm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하면 어느 정도 진행된 유방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정기적으로 유방 전문의의 진찰과 유방 촬영술을 시행받는 것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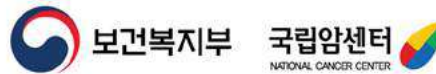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도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한쪽 유방에서 여러 개의 유관보다는 하나의 유관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짜지 않고도 저절로 내외에 묻어나거나, 멍울이 만져지면서 분비물이 있는 경우는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유방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유방의 굴곡이나 모양이 변하거나, 피부가 보조개처럼 함몰되는 증상도 포함됩니다. 또한 유두가 말려 들어가서 함몰 유두처럼 되거나, 유두 주위가 가려우면서 아프지 않으나 혈어서 습진처럼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기는 경우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방 피부가 두꺼워지고 별갈게 변하거나, 껍질처럼 거칠거칠해지고 부어오르는 증상들은 진행된 유방암에서 볼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윙크의 '친절한' 건강정보 #3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술로
아름다움과 건강 모두 지키세요!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방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유방을 보존할 수 있으며 완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특징적인 소견들이 나타나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자가 검진, 임상의를 통한 진찰 및 유방에 대한 영상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증상이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전문의를 찾아 적극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앞에서 말한 증상이 있는 경우 모두 유방암일 수 있나요?

만저지는 혹이나 유두 분비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하여 모두 유방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방암의 최종 진단은 유방 촬영, 초음파 등의 영상 검사 후, 이상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현미경 소견에서 암세포가 관찰될 때 비로소 유방암으로 판정됩니다.

▶ 유방암은 예방할 수 있나요?

- 1 유방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신다면 의사와 상의 하에 주기적인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 2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3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 4 되도록 음주는 피하도록 합니다.
- 5 가능한 한 모유 수유를 하도록 합니다.
- 6 흡연은 강력한 발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운 담배 연기도 피합니다.
- 7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 의하여 40세 이상 여성이면 2년마다 한 번씩 무료로 유방암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 (www.cancer.go.kr, 1577-8899) 사이트를 참고

